

외국인·기관 팔고, 개미 사들여 절반만 오르는 2부리그 ‘코스닥’

2차전지 뺀 바이오주 대부분 하락
‘부실기업’ 대거 포진… 신뢰하락
코스닥 기업의 47% ‘적자 기록’

“코스닥 시장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 우량주들, 전망 있는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인정 받아야 하는 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십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다.”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짚어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얘기했지만, 코스닥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 활성화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부진·한계 기업 비중 등이 기초체력을 낮추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코스피는 25.2% 오른 반면, 코스닥지수는 11.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들어서는 코스피가 3900선에 도달하는 등 12.3% 올랐지만, 코스닥지수는 3.6% 상승에 머무르면서 상승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뿐이다. 올해 상반기 개인은 4조209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985억원, 2조458억원을 순매도했다. 하반기 흐름도 비슷하다. 개인만 2조6587억원을 사들였고, 기관은 1조4787억원, 외국인은 1869억원을 팔았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는 코스피와 정반대의 흐름이다. 하반기 코스피에서 개인이 24조4906억원을 팔아치울 동안에도 기관과 외국인은 3조4362억원, 16조7651억원을 사들였다.

올해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종목들로 이뤄진 KRX반도체 지수는 91.24% 넘게 상승한 반면, 코스닥 유력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 위주로 구성된 KRX헬스케어 지수는 14.82% 상승에 그쳤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는 2차전지를 뺀 바이오주 대부분이 이탈들어 하락세다.

코스닥 내 진작 퇴출됐어야 하는 부실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해왔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코스닥기업의 23.7%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을 하회했다. 조사에서 코스피 기업은 10.9%였다.

또 코스닥은 단타 매매 성향이 강한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아 주가 변동성이 크고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체력도 바닥권이다. 한국거래소의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 1207곳 중 563곳(46.64%)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주식 수익률은 장기간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특히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2011년 이후 매년 6월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재산출할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코스닥 지수는 37% 추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883.68)보다 38.12포인트(0.98%) 하락한 3845.56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79.15)보다 7.12포인트(0.81%) 내린 872.03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스1

‘개미의 힘’ 장중 3900 돌파 관세협상 기대 ‘사천피’ 눈앞

23일 코스피가 장 중 39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갈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정부의 정책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등이 호재가 되고 있다.

여기에 10·15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까지 더해졌다. 코스피 4000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스피 0.98% ↓, 3845.56 마감
장중 사상 최고가 3902.21 터치
외국인 하루 4088억 순매도
개인 유가증권 8000억 순매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0.98% 하락한 3845.56에 마감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11시 50분쯤 사상 최고가인 3902.21을 터치했다. 장중 3900선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21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893.06)를 2거래일만에 갈아치웠다.

최근 국내 증시를 밀어올렸던 외국인은 이날 4088억 순매했다. 외국인의 빈 자리를 메운 것은 개미들이다. 개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800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이를 연속 순매수했다.

한미 간 관세·무역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

책실장은 22일 워싱턴 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양측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주제는 의견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며 “사실상 꽤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증시에 부담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카드로 등장했다. 미국 정부는 노트북부터 제트엔진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AI) 거품 논쟁과 미국 일부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대출 우려도 부정적 요인이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이 잇따른다. 삼성증권은 올해 남은 기간 코스피 밴드(등락범위)를 3600~4050까지 제시했고,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내년 코스피가 4200선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당 원화 가치는 전 거래일보다 9.8원 하락(환율은 상승)한 1439.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서학개미, 엔비디아 이어 코인·금 ETF까지 베팅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주간 순매수 3.5억 달러 1위
‘비트코인 채굴’ 아이리스에너지 2위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 자금 흐름이 빅테크 단일축에서 ‘AI·코인+금’의 이중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엔비디아 매수 강도는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주와 금 ETF로의 유입이 동시에 커지며 위험·안전자산으로 양극화하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1위는 엔비디아(NVIDIA)였다. 순매수 규모는 3억5318만 달러(약 5050억원, 1430원 환율 적용 시)에 달했다.

2위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이리스에너지(아이리엔·IRIS ENERGY)로 2억3558만 달러(약 3370억원), 3위는 이더리움 보유량 상위 기업 비트마인 이



ChatGPT로 생성한 ‘금, 엔비디아, 비트코인 보유 및 채굴 기업들 사들인 서학개미’

머전테크놀로지(BITMINE IMMERSSION TECHNOLOGIES)로 2억2110만 달러(약 3160억원)였다.

특히 아이리엔(아이리스에너지)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비트코인 채굴로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최근 AI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가상자산 + AI 인프라’ 테마를 내세우고 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보유량이 300만 개를 넘어 글로벌 블록체인 자산주로 부각됐다. 최근 한 주 동안 이더리움을 20만 개 이상 추가 매입하며 보유 규

모를 324만 개(약 130억달러)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종목 모두 최근 한 달 새 30~40% 급등하며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권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금 ETF로의 자금 유입도 뚜렷하다. 금 현물 ETF인 ‘SPDR 골드셰어즈(GLD)’가 7위, ‘아이셰어즈 골드트러스트(IAU)’가 18위에 오르며 안전자산 선호 흐름도 동시에 강화됐다. SPDR 골드셰어즈(GLD)는 순매수 3억1936만 달러(약 4567억원)로 상위 권에 안착했으며, 아이셰어즈 골드트러스트(IAU)도 약 5945만 달러(약 85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속이 맞물리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동시에 편입하는 ‘양극화 투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21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6% 넘게 급락하며 12년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한 만큼, 서학개미들의 금 ETF 매수세가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허정윤 기자

거래소, 내달 6일 코넥스 상장사 합동 IR

KC산업·로지스몬 등 33개사 참여

한국거래소는 내달 6일 한국IR협회의,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합동 IR’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KC산업, 로지스몬, 무진메디 등 33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기업별 일대일

미팅과 현장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양질의 기업정보를 제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업설명회는 3개 세션(세션당 11곳)으로 나눠 기업당 2회씩(각 50분) 진행된다. 이날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중소벤처업계 현황과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의 로봇 인공지능

(AI) 업황 설명회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합동 IR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무료 행사다. 오는 11월 5일 오후 6시까지 한국IR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상장법인의 기업설명회(IR)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원활한 투자정보 제공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올해 운용수익 10조 돌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 업권 1위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에서 전 업권 1위를 차지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 공시에서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총 퇴직연금 적립금 누계액은 5조729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고객들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약 10조원의 수익을 거둔 점이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DC·IRP)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은 3분기에만 2조7585억원 증가했으며, 전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유일하게 2조원을 넘어 업계 최고 증가액을



미래에셋증권 을지로 센터원. /허정윤 기자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 연금자산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체 연금자산(개인연금, 퇴직연금 DB·DC·IRP 합산)은 52조원을 돌파했다.

회사는 체계적 상품 구성과 장기 운용 원칙,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연금 인출기까지 아우르는 종합 연금 플랫폼을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